

현장과 시각

무너진 집 세간 챙기기



임동욱

서울취재팀장

지난 1990년, 당시 여당 대변인이었던 박희태 의원이 정치적 혼란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

우선 대통령직선제 개헌은 대선 참패 이후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충돌한 데 이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명분으로는 당의 쇄신과 통합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기득권을 확보, 공천과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암투였다.

여기에 손학규 대표와 대선 후보 경선을 함께 치렀던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문제삼아 탈당, 또 다시 다가올 분열을 예고했다.

민중당과 창조한국당도 한나라당의 권력 독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범여권 진영 단일대오 형성'에 대한 진지한 모색보다는 총선 체제 정비에만 골몰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외곽 진영에서는 '제3지대 신당'이라는 또 다른 총선 섀뱌를 제시하고 있다.

또, 그동안 입만 벌였다 하면 '광주 정신'을 내세우고 때만 되면 5·18 국립묘지를 찾아 나섰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호남의 정치적 고립이 우려되는 위기 국면에서 자기 희생의 결단보다는 총선을 겨냥, 지역구 다지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무너진 집의 기둥을 다시 세우려하기보다는 남은 세간이나 챙기려는 별칭 사나운 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에 이어 18대 총선에서도 범여권이 50석도 건지지 못하는 대참패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이 나름의 의석을 확보, 한나라당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솔직한 참회와 반성, 백의종군,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전제로 한 공천 혁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4월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호남 민심은 범여권 진영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고 있다.

t/ium@kwangju.co.kr

“혁명적 개혁만이 민주당 살 길”

지도부·당원 총출동 광주서 ‘쇄신 토론회’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중앙당 지도부부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개혁에 임하는 ‘환골탈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최근 기 원내대표와 유종필 대변인 등 중앙당 지도부 그리고 최경주 광주시당 위원장과 당원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쇄신과 발전방향 대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살아남으려면 혁명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빚뿐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수열 조선대 교수(한국동북아학회 회장)는 ‘제18대 총선과 민주당의 활로’라는 발표문을 통해 “50년 전통을 지닌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맞서는 주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려면 당 지도부부터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시·도민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며 “미봉책으로 쇄신 요구를 가리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기욱 교수(호남대 대학원장)도 “민주당은 혁명적 발상으로 당 쇄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기득권을 중앙당 지도부부터 포기하고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익희 선생 등 선인들이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원 대표로 토론에 참가한 박경원 씨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의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며 “공천현금 안 받겠다는 대국민 선언도 하고, 불법·불공정 선거를 치르려는 인사들에 대해서 대국민 고발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선거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들도 “민주당은 대통합 민주당의 실패를 이용, 반사이익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상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참패는 물론, 당의 존재마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인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앞으로는 유연성을 갖고,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민주당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 쇄신과 발전 방향토론회가 17일 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지도부와 당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송두영·김용역씨 광주 북구 갑·을 출마

4·9 총선 현장

“개혁·전문성 갖춘 후보 필요”

○한글일보 기자 출신인 송두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부대변인이 17일 광주 북구갑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

지난해 대선에서 손학규 대통령 경선후보 캠프에 합류, 활발한 정세분석과 논평 등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은 송 전 부대변인은 이날 북구 두암동 말바우시장 인근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착수.

송 전 부대변인은 “광주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참신한 후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16년여의 기자생활을 바탕으로, 광주에서 가장 낙후한 북구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겠다”고 포부를 피력.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조”

○김용역 전 광주시의원이 16일 선관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18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를 지역 출마를 공

식 선언.

김 전 의원은 이날 시의회 기자실에서 “30년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병원장·교수·교육위원·시의원을 지낸 경험을 활용,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며 출마의 변을 피력.

입지자 북적 효사랑 행사 취소

○광주 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권력욕’이 봉사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러 눈총.

17일 남구새마을부녀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남구 관내 16개 동을 순회하며 노인들에게 떡국을 제공하는 ‘효사랑 떡국 나눔행사’를 열고 있으나 행사가 시작될 무렵 7일부터 매일 4~5명의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방문, 떡국을 들고 있는 노인 100여 명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고 악수를 청하는 바람에 식사가 방해받는 것은 물론 행사 진행마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범여 연대·통합론 재부상

민주당 지도부 “뭉치지 않으면 총선 전멸”

범여권에서 제 세력 연대·통합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대선패배 이후 연대·통합론은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연합공천론,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헤쳐모여식’ 제3지대 통합신당론 등 주로 민주당 쪽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성삼재 도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설득하러가 채권자나 중앙부처에서 이해하고 도와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정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는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워민, 여기 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얘기가.

“이제 전남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세 세계박람회를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조선산업을 잘 육성하면, 전남의 운명은 바뀔겁니다.”

그는 퇴직을 한 뒤에도 ‘나후의 대명사’로 불리던 전남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중정기자 jjnews@kwangju.co.kr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학규 대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내 단합을 우선 순위로 두면서도 “범여권 통합의 소망은 지금도 유혹하다”고 원론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처럼 신당 지도부가 통합론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 총선에서 범여권 진영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당 의원들이 수도권에서 전멸할 수도 있다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또 당내에서는 한나라당 출신인 손학규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범여권 호남에서도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신당 수도권 재선의원은 “당분간 각당이 통합·연대론의 불씨를 살려가면서 탐색전을 펼치지 않겠느냐”며 “손학규 대표 체제에 대한 호남민심의 평가, 총선 이후 범여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정도에 따라 통합·연대론의 수위가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엑스포 등 전남 도약 기회 잘 살려야”

30년 공직 마감 김영록 전남도 행정부지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농촌문제도 기존의 노력과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도 챙기는 복지측면에서 풀어나간다면, 더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7일 명예퇴직하는 김영록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전남의 미래’를 걱정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지만,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건설 등으로 잡은 도약의 기회를 도민들이 힘모아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지사는 지난 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내무부 기획담당을 시작으로 강진, 완도 군수를 거쳐 전남도 경제통상국장과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지방행정 전문가.

그는 지난 2006월 전남도 행정부지사 취임 이후 박준영 도지사의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전남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특유의 기획·조정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착공,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 굵직한 지역현안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결집하는 리더쉽과 성실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의 성실성은 외환위기 시절 경제통상국장으로 있을 때도 발휘됐다. 그가 합력한 이래 내무부 기획담당을 시작으로 강진, 완도 군수를 거쳐 전남도 경제통상국장과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등

원하던 일은 지금도 전남 경제계에서 회자된다.

“중앙부처에서야 여러 부도난 기업 중에 하나였겠지만, 전남 입장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업 아닙니까? 성실함이 체권자나 중앙부처에서 이해하고 도와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정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는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워민, 여기 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얘기가.

“이제 전남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세 세계박람회를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조선산업을 잘 육성하면, 전남의 운명은 바뀔겁니다.”

그는 퇴직을 한 뒤에도 ‘나후의 대명사’로 불리던 전남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중정기자 jjnew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EMPIA air conditioning units. Text includes '300명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and '1/3로 줄었다!'. Images show various air conditioning models.

Advertisement for (주)무등산업 (Mudeung Industry Co., Ltd.). Text includes '소비자 만족도 1위!!' and '365일 무등산 서비스 센터'. Images show various home appliances like refrigerators and washing machines.